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6, 마태복음 3-4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마태복음 3-4장 6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 그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모델,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자신이 전한 길을 선포한 오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례를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당혹스러움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조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서둘러 넘어가기 위한 수사적 관행인 분사에서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요한의 과묵함을 보십시오. 요한은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주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오실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치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물세례는 너희가 성령세례를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인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늘 부분에는 구약의 신현, 구약의 계시, 하나님이 키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에스겔 1장, 또는 이사야 64장에서와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랍비들이 박쥐 콜(bat qol)이라고 불렀던 하늘의 목소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때때로 하늘에서 신성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말하여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이 구절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증거로서 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이다.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한 예언도 하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증거로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비둘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배경을 찾는 일부 사람들은 유대 문헌에서 이스라엘이 때때로 비둘기에 비유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예수께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랍비 문헌의 일부 본문에서는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훌륭하게 작동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고대에 마태복음의 청중이 가장 많았던 가장 분명한 배경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비둘기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또는 재창조.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새 시대, 새 시대를 가져오셔서 비둘기의 형태로 오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뭔가가 날려면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하고 날아다니는 개미나 박쥐 같은 것보다 비둘기가 더 잘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때때로 방망이 소리나 천상의 음성이 들리는데, 랍비들은 그것이 성경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성구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편 2편과 7절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다윗의 혈통에 관해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부르시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리스어 번역과 마가복음 사이의 표현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대한 암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나중에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의역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은 내가 내 영을 넣어 준 나의 사랑하는 종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이를 천국의 음성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오실 왕과 고난을 당할 이사야의 종에 대한 선포인 시편 2편이 결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암시일 수도 있고, 미묘한 암시일 수도 있고, 마태복음의 핵심 청중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이중 역할, 즉 왕이 기대하는 메시아적 역할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 또한 고통받는 하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부음받은 왕국을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들은 더 짧은 마가복음에 서로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 본문들은 서로 매우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3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세례를 받은 삶의 모델이 되실 것입니다. 글쎄요, 성령세례를 받은 삶은 단순히 성공과 기쁨의 모델처럼 보이고 ,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멋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 다음 번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 들을 때, 성령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데, 거기서 성령은 예수님을 고난에 직면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른다면 때로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기뻐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구절인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이에 반응합니다.

마귀는 도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증명하고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27장 40~43절에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서 2장 18절에 있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의 외경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 즉 의인에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전하면서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은 사악함의 전형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강력한 규칙입니다. 마귀는 아들의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기 위해 다른 권력 모델에 호소합니다. 마술사는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은 마술사나 마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늘리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조종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거나 요르단 강이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혹된 환상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것의 절정인 예수는 정치적 혁명가나 지상의 정치적 통치자의 역할을 거부합니다.

악마는 그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대안적인 황제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언어가 나중에 마태복음의 또 다른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구절에서 베드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사탄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는 왕국을 말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거기에서 사탄의 대변자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2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역시 사탄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과의 유사점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라는 단어도 눈에 띄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실제로 마가에서 영이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극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매우 강력한 용어입니다.

영혼이 그를 쫓아 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도(l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의 세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40일 금식을 했던 엘리야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엘리야 역시 모세의 모델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요한처럼 광야로 가는 희생의 모델입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보는 것과 일치하십니다.

승영 전의 십자가가 패턴에 맞는 것처럼 그분도 패턴에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봉사하기 전과 봉사하는 동안 종종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이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자기에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노예가 된 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이집트의 고관으로 높아지게 되고 결국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은 물론 애굽과 주변 민족들을 구원하는 자의 부르심을 이루기 전에 시험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광야 뒤편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도 마찬가지다. 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마침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시점까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깊은 시험을 겪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신자가 아니기 전보다 더 나쁜 것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 말은, 일단 내가 신자였을 때,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지만 내가 겪은 최악의 시험은 내 사역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고, 거짓 고소로 인해,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저는 고통에 너무 무감각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아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간주나무 위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죽게 하소서 그들이 내 조상보다 나은지라 다윗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박해할 때 다윗은 거의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딸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도 먼지와 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그 시험이 계속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나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남자 또는 여자인 것은 당신이 아주 멋진 무언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영예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모델로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가 되셨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인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실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게 다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인용한 구절의 문맥적 요점에 실제로 맞는 비유를 적용하셨습니다. 마귀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맞지 않게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세 가지를 인용하셨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면, 사해 두루마리는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이사야서는 두 번째로, 시편은 세 번째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은 시험 중에 때때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은 8장과 5절에서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과 같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동안 내가 그들을 먹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맥락을 아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공급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느니라. 마귀는 그에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문맥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랍비들은 성서 토론에 참여할 때 예수께서 당시의 몇몇 교사들과 함께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누군가가 본문을 인용할 때 종종 반대 본문을 인용하여 "아니요,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16. 이제 그가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방금 신명기 8장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 멀지 않은 신명기 6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 방식,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맥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4.9-10. 글썄요, 정치적 왕국을 추구하는 메시아 주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통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콤란 전쟁 두루마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금 인용하신 구절에서 불과 몇 구절 떨어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문맥에서 여기의 문맥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마귀가 나에게 옆드려 경배하라 말한다면 그는 자기를 다른 신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거부하십니다. 그가 사용한 바로 그 문맥에서 성경을 인용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이 구절에서 인내하는 자의 승리를 봅니다.

이생에서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기간에 우리는 시험의 끝인 11절에 이르렀고, 예수님은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사탄이로다, 그러면 사탄은 떠난다. 예수님은 4장 6절과 7절에서 천사를 찾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뛰어내릴 때 그를 따라잡아 줄 천사들에게 의존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수종든다.

그것은 겐세마네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면 12군 천사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하실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기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도시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도시 기준으로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나사렛에 비하면 큰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대략 이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그곳은 아마도 요한이 체포되었던 페레아 근처였을 것입니다.

나사렛을 발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가버나움을 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밖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벧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 가버나움이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리 밖에서는 고라신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일들은 분명히 예수에 대한 최초의 갈릴리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심지어 다른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종류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의 공개 사역에 앞서며 어쩌면 선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가버나움은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아마 1,000명, 어쩌면 2,000명 정도였으며, 흔히 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티베리아스나 세포리스만큼 크지는 않았습니까. 그곳은 갈릴리의 두 주요 도시였지만, 또한 매우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에 관해 훨씬 더 전통적인 유대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헬레니즘 지역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등 아람어권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도로, 가버나움은 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곳이어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많은 갈릴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페레아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헤롯 필립스의 영토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거기서 사역하시되 나중에 가버나움이여 화 있을진저 이르시되 만일 너희에게 일어난 표적을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저희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가버나움은 비록 모두가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을 통해 나중에 그곳에 매우 강력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랍비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가버나움의 야코프요, 가버나움의 야곱이었는데, 그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가 예수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태의 반대자들과 예수 추종자들의 반대자들은 그의 갈릴리 출신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토라에 신실하지 않다고 종종 비판했지만 그것은 단지 지역적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를 내려다보고, 일부 지역이 다른 일부 지역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의 변경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교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암니아의 랍비들은 갈릴리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2세기에 랍비들의 리더십을 무시했지만 갈릴리인들은 실제로 토라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이 율법을 지키는 데 매우 진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이 예루살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3일 동안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그곳을 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정착하신 것도 이방인 선교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여기서 이방인의 갈릴리에 관한 이사야 9장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자, 월터 그룬드만(Walter Grundman)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가 이방인이라는 뜻이므로 갈릴리에서 자라신 예수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Walter Grundman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터 그룬드만(Walter Grundman)은 나치당을 위해 일했던 나치 신학자였으며 그들은 예수를 탈유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 이 시기에 갈릴리 전역에 유대 정착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정착했습니다.

갈릴리에도 이방인 공동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왕국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종종 같은 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왕국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의 의미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영어에서는 때때로 사람이나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왕국으로 번역된 단어는 특히 통치, 통치 또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현재에도

통치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쉘마를 암송하면 천국의 멍에를 메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쉘마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통치하실 날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왕국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말한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디쉬(Kaddish)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버전인 Kaddish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위대하고 영화로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속히, 속히 임하게 하소서.

글쎄요, 그것은 주기도문처럼 들리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적용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만일 그가 그것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는 적용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도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국이 가까워졌다는 뜻인가요, 거의 다 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왕국이 도래했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 이것은 의미론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침입이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요구됩니다.

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그것은 초대교회의 오리겐이 아타바실레아라고 불렀던 것, 곧 그 자신 안에 있는 왕국입니다. 여기에 왕이 있었고, 그 안에 왕국이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이 왕국,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다음 문맥에서 예시됩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질병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왕국이 갖는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국이 가까웠다면, 다가오는 왕국에 비추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가오는 왕국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의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8장으로 건너뛰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왕국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있어서, 유대와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 인식했듯이 우리도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도 인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실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왕국은 이미 역사를 침범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왕국이 두 단계, 두 단계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은 메시아는 두 번 오십니다.

그들은 왕의 오심과 왕국의 임함을 바랐으며 죽은 자의 부활을 바랐느니라. 글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가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약 전체에 걸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일부 번역에서는 이것이 시대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에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1장과 5장은 영에 대해 헬라어로는 아르하본(arhabon)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계약금을 의미하는 비즈니스 문서에 사용되는 그리스어 용어였습니다.

실제로 이는 셈족 언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도 빌려온 단어입니다. 아라본(Arhabon), 첫 번째 할부금인 계약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입문의 시작, 미래의 유산의 개시를 받았습시다.

아, 정말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맛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말은, 성경은 종종 상징적인 언어, 비유적인 묵시적인 언어, 아마도 시적인 언어로 그들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미래의 유업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체험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실제로 그 영에 관해 말한다.

우리는 경험의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왕국의 절정,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과 예수께서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절정에 이르는데, 왕국 언어와 왕

언어는 15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마가는 왕국이 십자가를 통해 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합니다.

물론 마태는 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절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는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복음서의 어떤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현자들은 제자를 찾는 것이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들이 당신을 찾아 당신을 존경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현자에 대해 만들어내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유 자료에 있는 다른 출처를 통해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9~22절과 누가복음 9장 57~62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에게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12명의 제자가 잘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의 후반부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사에게는 자신의 작업을 전파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를 두신 것은 정당한 일이며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구조가 확실히 셈어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기서 가장 분명한 것은 어부를 발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어부들은 농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세리의 이름은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직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말하자면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몇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서기관을 만들고, 바리새인을 만들고, 사두개파 한두 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는데, 종종 우리의 배경을 이용하십니다.

어민. 갈릴리 사람들은 생선과 곡물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판매자는 건어물, 판매자는 건조 또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은 대개 농부들보다 형편이 더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의 과거 경험을 활용하십니다. 모세와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에게 이미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기술을 취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선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을 때에도 고대 그리스 사물과 로마 사물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로마 역사가, 그리스 고전, 그리스 철학자 등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아, 안돼,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아, 이 중 일부는 제가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유대인 자료만큼은 아니었지만 학자로서의 제 작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배경이 많다. 사실 한 가지 점이 있었는데, 저는 아주 초보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야만 했고, 2학년 라틴어 수업이었고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을 번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매우 빨리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통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리아 전쟁이라는 로마 장군으로서 책을 썼습니다. 원래는 그걸 번역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라틴어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카이사르를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을 펴고 손가락을 아래에 꽂았습니다. 좋은 해석 방법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해봤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아래로 내밀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해주기를 바랐다.

오히려 누가복음 20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글썄, 그것은 그 텍스트의 보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카이사르를 번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숙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종종 우리 배경의 것들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하지만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를 따르려면
 그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는 어쨌든 그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 일부는 포기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을만한 사람이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고대
 교사들만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특히 자신의 자원을 남겨두고
 따르도록 요청했습니다. 가족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쾌한 일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사명은 왕뿐만 아니라 종의 사명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우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마도 일반적으로 하향 이동성이라고 불립니다.

장인, 어부, 세금 징수원은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농민, 갈릴리 시골의 농부 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업 협동조합과 같은 가족 기업과 Mark는 가족 중 한 명이 하인을 고용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이 두 가족은 낚시를 함께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먹을 물고기를 얻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그물을 구입할 여유가 있고 그물을 수리할 여유가 있다면 그물을 청소하여 상당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생계를 포기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일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기 동안에는 갈릴리 주변을 많이 여행할 수 없는 특정 계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해의 다른 계절에는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년 내내 생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완전히 노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다고 알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머물 곳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과장법입니다. 수사학적 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계절 여행. 12월부터 3월까지 이 지역은 우기였습니다.

30~50 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여행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파종기와 수확기 외에는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항상 여행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완전한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미안하지만 갈릴리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들이 배를 타더라도, 알다시피, 항상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역을 위한 희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기를 우리는 아내가 없으되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그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어떻든 아이들은 다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 사업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9장 9절에서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결혼 생활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랍비, 즉 예수 세대의 두 랍비 학파, 예수 세대의 바리새인들은 삼마이 학파와 탈랄 학파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이 아내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 서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집을 떠나 있으면 그녀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랍비들에게 가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를 위해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야기한 랍비인 랍비 아키바(Rabbi Akib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 공부에 있어서 교사와 공부하러 가면서 예외를 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와 7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7년 만에 집에 돌아와 집 문 앞에 다가가 아내가 이웃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웃이 이르되, 라헬아, 그 사람이 당신과 떨어져 지낸 지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사람을 아직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그것이 토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7년만 더 나와 떨어져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자 아키바는 물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서 7년을 더 공부하고 수천 명의 제자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화는 아니지만 그들이 가족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지만 토라 연구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오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며, 예수님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4장 23절부터 25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의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다음 설교 부분, 예수께서 하시는

다음 연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다음 설교 직전에 예수의 공개 사역에 대한 비슷한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직전에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도달하기 전에 마태복음 9장의 끝 부분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로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그분께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아픈 사람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과장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과 마태도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인 과장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요점을 밝히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갈릴리에서 병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처음 몇 장에서 치유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인기 있는 교사들, 특히 훌륭한 연설가들이 와서 해설하는 것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회당에는 모든 회당에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모든 회당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거나 서기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지식이 풍부한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군중을 끌어들이셨겠습니까? 글썄요, 치유에 대한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은 군중을 끌어 모았을 것입니다.

하마트 티베리아스와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온천이 어떻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마트 티베리아스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온천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순수한 성질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치료자로서 명성을 얻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갈릴리 외곽 시리아 지방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음,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이방인 선교를 예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희생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가르쳤을 때 제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다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땅바닥에 몸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치유받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가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곳은 이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가 기도했거든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안고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상심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은 이해합니다.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치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치유는 약속된 미래의 징표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항상 치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여러분이 기도해 준 사람은 모두 치료를 받았나요? 내가 기도한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주 씨름해야 하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업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말을 한 신학생은 자신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당장 낫지는 않았지만 1~2주 안에 괜찮아졌습니다. 그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어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믿음의 희생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우리의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할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희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또한 우리에게 인기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더 큰 맥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멈추면 이야기의 교훈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사람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중이 당신을 따르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서 군중이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함을 명심하라.

인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인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제 아마도 27장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분을 따르며 환호하는 군중과 같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갈릴리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군중은 울부짖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구별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는 여전히 서사적 연속성이 존재하므로 항상 인기를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함께 왔다가 갔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왔다가 간다. 가지고 있는 동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게 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제자이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존경합시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마태복음 3-4장 6부입니다.